

자가격리 대상자 자녀 계속 등교... 학교 덮친 메르스 공포

허술한 관리시스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공포가 학교를 덮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에 메르스 의심 자가격리 대상자가 38명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들 자녀에 대한 관리 시스템은 허술하기 때문이다.

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지역에 거주하는 메르스 의심 격리대상자의 자녀 4명에 대해 등교금지 조치했다. 이들 대부분은 자가격리된 부모가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함께 휴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중 한 명은 부모가 자가격리된 이후에도 사흘간 학교와 학원 등을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의 아버지는 순창 보병원에서 메르스 확진 환자를 진료해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 지난 5일부터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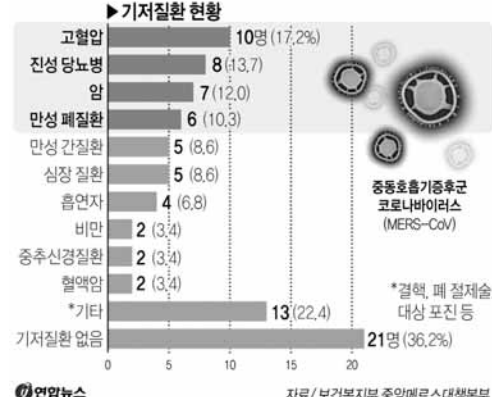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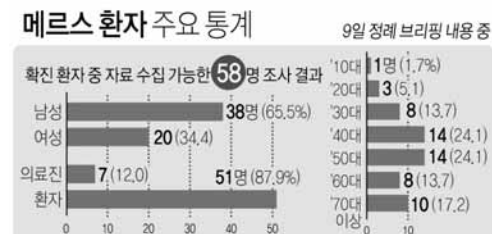
광주시교육청은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 학생을 9일부터 등교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해당 학교에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발열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검사 결과, 다행히 전교생 모두 별다른 징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청과 보건당국의 불통에 따라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시가 메르스와 관련한 정보를 전혀 넘겨주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자가격리대상자 명단조차 없으니 자녀의 등교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광주시 등 보건당국이 파악한 정보를 공유해야 각급 학

교육청·보건당국 불통에 명단조차 파악못해 사흘간 학교·학원 돌아...광주 4명 등교 금지 남구보건소 민원 빗발 등 학부모들 불안불안



교에서 적절한 대응조치를 할 수 있는데 정보를 전혀 넘겨주지 않는다”며 “이 때문에 교육청은 학생을 통해 메르스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이미 때를 놓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격리대상 자녀가 돌아다니는 사실을 알게 된 이 지역 학부모들은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다. 학부모들은 카톡으로 자가격리 대상 아파트와 학원 등을 거론하며 “근처

에 가지 말라”고 수군대고 있다. 김제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를 진료했던 또 다른 여의사도 최근 광주 남구 자택에 들렀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는 진정되지 않고 있다.

학부모 A씨는 “메르스 감염 의심으로 격리된 의사가 어떻게 자녀를 학교에 보냈는지 어이가 없다”면서 “학교와 교육당국이 학부모가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다니 이런 무책임한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분개했다.

남구보건소도 지역민들의 민원성 전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남구보건소의 경우 지난 8일 순창에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A(여·72)씨를 진료한 순창지역 내과의원 의사 B씨를 비롯, 의료진 5명이 남구에 머무르고 있는 사실이 전해진 뒤 지역민들의

확인 전화에 시달렸다.

전화 내용은 “확진자와 접촉한 의료진이 사는 동네가 어디냐”, “자녀들도 있을 텐데 방역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게 대부분이었단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확진자와 접촉한 의료진이 사는 동네를 찾아보거나 추정하는가 하면, 어떻게 지내야 하느냐며 불안해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알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를 예방하기 위해 9일 오후 광주 광산구청 직원들이 마스크와 손 세정제 등을 각 부서로 전달하기 위해 옮기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려지고 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격리대상 자녀가 등교하지 않아도 결석처리는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단속 중단 방침에 활개치는 음주운전

광주 일주일간 129건 적발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공포가 전국적으로 확산한 가운데 경찰이 음주단속을 중단했다는 방침에 오히려 음주운전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이 메르스 확진환자 발생지역에서 차량 검문 방식의 단속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음주 단속 긴급 업무지시’를 내린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음주운전 단속건수는 129건이다.

이는 전주(지난달 27일~31일) 107건보다 22건(14%) 증가한 수치다. 경찰청이 메르스 확산 이후 음주운전 단속을 검문방식에서 선별방식으로 바꿔 실시한 점을 감안하면, 음주운전자 수가 대폭

늘었다는 증거이다.

경찰은 음주감지기 측정 과정에서 메르스 감염을 우려, 단속지점 주변에서 갑자기 차를 바꾸며 의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거나 운행 상태가 불안정해 보이는 운전 등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만 단속 대상으로 삼고 있다.

경찰이 주장한대로 음주단속을 선별적으로 하는데도 음주운전자들이 늘고 있는 이유는 메르스 감염 우려 때문에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소문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메르스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음주감지기 소독 등 적절한 대비책 없이 단속실적을 위한 막무가내식 음주단속 속에서 나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많다. /이종행기자 glee@kwangju.co.kr

위험한 음주단속... 음주감지기 소독않고 마구잡이 사용

둔감한 경찰

9일 밤 10시30분경 광주시 동구 5·18 민주광장 앞 경찰 8명이 3차로 도로의 한쪽 차선을 막고 음주 단속을 실시하고 있었다. 단속 경찰은 차량을 멈추게 한 뒤 창문을 여는 운전자를 향해 “음주 단속입니다”라고 말하며 음주감지기를 들이댔다. 경찰은 뒤따르는 차량 운전자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음주 감지기를 들이댔다.

경찰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의 불안 심리를 고려하지 않은 둔감한 음주 단속 방법을 고수하면서 비판을 받고 있다. 경찰 스스로 국민 불안감을 우려해 내놓은 음주단속 매뉴얼(행동지침)조차 무시한데다, 메르스 바이러스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기본적인 매뉴얼 안 지켜 운전자에 잇따라 사용 시민들 “감염될까” 불안

할 때 튀는 침 방울, 비말(飛沫) 감염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면서 ‘기침 에티켓’ 준수 등 조심하는 사회 분위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둔감증을 드러냈다는 비판도 터져나오고 있다.

9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각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만 음주 감지기를 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음주 단속 긴급 업무지시’를 하달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은 음주감지기의 경우 메르스 감염 사태가 악화하면서 호흡 측정 과정에서의 전염을 우려, 사용 직후 마다 약품으로 소독해 사용하도록 했다. 또 마스크와 장갑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뽀뽀’해하는 운전자들이 항의하는 등 불만도 잇따르고 있다.

당장, 8일 밤 2시간 넘게 진행된 광주동부경찰의 음주 단속 현장에서는 매뉴얼대로 비말코일성 소독약과 알코올 솜으로 ‘뽀뽀’ 소독한 뒤 음주 감지기를 그때마다 들이대는 경찰들이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선별 단속은 커녕, 모든 운전자들에게 막무가내식으로 음주 감지기를 들이댔다. 메르스 감염 경로 등을 감안, 기침할 때에는 침이 튀지 않도록 입과 코를 휴지, 팔꿈

치 안쪽 등으로 가리고 하는 ‘기침 에티켓’을 잘 지켜야 한다는 권고가 일상화되는 상황이지만 경찰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7일 밤 이뤄진 광산경찰의 음주단속도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단속 때 감지기에 침이 될 수 있으니 사용 직후마다 소독해 사용하는 지시는 지켜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자신들은 마스크와 장갑을 끼면서도 시민들에게는 비말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는 무책임함을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산경찰 음주단속에 응했던 전자 김모(48)씨는 “다른 운전자가 불었던 입김을 닦지도 않은 채 음주 감지기를 들이댔다”면서 “불쾌하고 찜찜했지만 ‘우리는 그대로 단속 합니다’라는 말만 했다”고 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신축 원룸 매매

전대정문 2분! 후문 2분(신축 4층건물)
월세 인기좋은 / 임대 걱정없음
룸12개, 올 대리석시공, 신축
(1층점포 1개, 2~3층룸 10개, 4층주책 1개, 옥탑)
옥상에 파라솔 설치

월수익 500만
매매가 6억 7천

① 북구 문흥동 톨14개 월수익 430만	⑤ 남구 백운동 대항 1차 APT 24평 보1천 월60만 가격저렴 매매가 1억1천500만
② 북구 용봉동 톨300평 건150평 월수익 450만7개 가능 매매가 8억	⑥ 상무지구 수림오피스텔 6층 23평 보5백 월 50만 매매가 9천만
③ 북구 문흥동 전대후문 5분거리 월수익 540만 매매가 8억5천만	⑦ 상무지구 수림오피스텔 6층 19평 보 5백 월 42만 매매가 8천만
④ 서구 생촌동 원룸 11평 30평(보1천 월수익302만) 매매가 3억500만	⑧ 상무지구 수림오피스텔 6층 13평 보 3백 월 32만 매매가 5천만

010-6832-9700
010-6834-4800

상가건물매매

<나주시 삼영동 2층 건물>

1층 6칸, 2층 2칸
토 205평, 건 47평
나주 영강초교 정문 앞
학원건물 적합

※ 학원 / 도장 / 분식점 운영적합

월수익 200만 매매가 3억

① 서구 화정동 영주사거리면 3층건물(1층상가)2층상가,3층주책 매매가 7억2천만	⑤ 서구 상무지구 5층건물 월세 1천8백 매매가 20억
② 수원지구 모이벨기앞 4층중 3층 85평 월수익 170만 매매가 4억	⑥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 45평 보 1천 월 60만 수익 매매가 1억1천만
③ 수원지구 수원동 3층건물 신축 토지144평, 건280평 월수익 800만 매매가 16억	
④ 서구 상무지구 정연 3층상가 30평(보1천 월70만 수익) 매매가 1억 3천만	

010-6670-9800
010-6834-4800

(주)대신경매

이제 경매는 대중화 시대
입찰부터 매매 임대까지

수익성 상가 (근린 상가)

- 1.서구 문흥동 7층상가토180㎡,건285㎡/건장가 6억6천 →최저가 2억9천
- 2.광산구 월계동토42㎡,건135㎡/건장가 2억 →최저가 1억4천(청년상가)
- 3.북구 신원동 오피스텔토64㎡,건248㎡/건장가 2억4천 →최저가 1억2천3백

수익성상가 (근린주책)

- 1.여수시 교동토180㎡, 건259㎡/건장가 13억~6억9천
- 2.담양 금성면토9200㎡, 건882평/건장가 27억 →최저가 9억9천
- 3.담양 남면토1427㎡, 건1251평/건장가 32억 →최저가 7억4천

수익성 상가 (근린 시설, 통건물)

- 1.화순읍 삼천리 2층건물토735㎡,건476㎡/건장가 77억 →최저가 49억(롯데마트)
- 2.담양읍 금성면토9200㎡,건882평/건장가 27억 →최저가 9억9천
- 3.순천 4층건물토206㎡,건221평/건장가 4억2천 → 최저가 3억

직원 구함

경매직원구함, 경매 컨설팅 같이 할 직원 구합니다.
부동산 기획 개발까지 배우실분!!

010-7384-7800 / 010-6670-9800 / 062-226-4600

상가임대

<상무지구>

상무지구
5층사무실·임대
(현, 학원운영중)

①평수 : 100평 (분할가능) 5층 전체사용
보증금 2천만원 월 130만
(시설완비,즉시입주가가능)
(엘리베이터 완비, 주차 3대 무료, 금용가도로 바로 이면코너)

②평수 50평-보증금 2천만 월 70만

상무지구 롯데마트옆
(수림오피스텔) 6층
즉시입주가가능

③605호 → 19평 보300만 월40만
④606호 → 23평 보300만 월42만
⑤614호 → 13평 보200만 월32만

010-7384-7800
062-527-7600

경매

실전교육반모집

바로 실전 교육받고
수익창출가능

매주 목요일, 토요일(오전반,오후반)
경매기본 교육부터 ~ 실전까지
(입찰,매매,임대,개발기획까지)
→ 노후대비 적합

010-2699-5300
062-382-5500

경매직원모집

경매컨설팅
같이 근무할 직원 모집합니다.

남, 여 직원 모집합니다!
부동산 기획개발까지 배우실분

062-382-5500
010-2699-5300